

정읍시, 내년 예산 1조1200억원 편성

올 1조465억원 대비 7.2% 증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중점 상품권 발행·소상공인 기본소득

정읍시가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1조 1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읍시는 올해 예산 1조465억원 대비 7.2% 증가한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1조420억원, 특별회계 800억원 등 총 1조1220억원을 편성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420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992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828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6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761억원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성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

급한 현안사업과 시장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년도 정읍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정읍사랑 상품권 600억원 발행, 정읍 공공배달앱 구축, 소상공인에 1인당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지역일자리 취업 중개센터 확대 운영,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0년간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20억원과 교육·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해 정읍교육청 이전부지에 평생학습관을 (인재양성관)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읍역 지하차도를 복개, 다목적 활용 공간을 만들고 공연과 플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관광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으로 내년부터는 59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민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이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양질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병동(24시간 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본격화 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리는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 도시로의 거대한 전환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위기(危機)는 곧 기회(機會)'라는 말처럼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 받았다

고창군이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사진〉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은 습지 부근에 위치해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람사르' 상징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은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연안습지인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의 복원, 습지 가치 인식 증진 등의 활동을 지

역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고창 운곡습지'는 2011년 4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종 포함 83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2014년에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관광지,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생태관광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 갯벌'은 2010년 12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 90종과 대형저서생물 225종, 염생식물 26종이 서식하는 해양생물 다양성으로 최고 수준이다.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로 우리나라 2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취업중개센터, 일자리 창출 산업체 협력 강화

19개 기관·산업체 참석 협력 회의

정읍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 직업인 육성을 위해 지역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읍시와 정읍시 취업중개센터(센터장 이만세)는 지난 1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체 협력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기관별 협력 회의에 이어 산업체들의 일자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이만세 취업 중개센터장, 이현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SK넥실리스, 하림, 우성공업, 푸드하다, 세창스틸 등 지역 내 19개 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만세 센터장은 각 산업체에 인력 채용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이달 24일 정읍체육관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에 대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정읍시와 지역 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체 협력 구축 회의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또 산업체 관계자들은 인력 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취업 중개센터에서 인력을 적시에 산업체에 알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신설된 취업 중개센터와 산업체 간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10월부터 수성동 근로자종합복지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 정읍시 취업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10월부터 수성동 근로자종합복지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 정읍시 취업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국·도비 4억5000만원 확보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흥덕농협을 사업 대상으로 한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줄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단화된 들녘의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생

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인 흥덕농협은 친환경 퇴비생산에 필요한 저장시설과 탈취시설, 장비를 확충해 환경보전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3월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2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신중년 일자리 공모 5년 연속 선정

7억여원 확보...12개 사업 추진

남원시가 각 분야 경력을 가진 중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7억8000여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가 당장 내년부터 모집을 통해 제공하는 신중년 일자리는 51개로 6개 분야 12개 사업이 해당된다.

모집 경력은 ▲정기, 안전, 토목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지하수, 지질, 산업 ▲의료기관 간호 근무 경력 ▲농촌지도, 가공 관련, 내수면 양식업, 귀농귀촌 관련분야 ▲사서 및 독서지도 관련

자격 또는 도서관 근무경력자 ▲소방, 정리수납 ▲정원 조정, 정원과 숲 상담심리치료 분야 ▲옷칠, 같이, 목공 경력 등 '사회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들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모집의 참여대상은 만 50-64세의 미취업자이면서 해당 업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중년층이다.

참여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시급 1만1000원~1만6000원의 보수와 함께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16일까지 '광한루원 미술산책 전시회'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가을 단풍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는 오는 16일까지 전통정원 산책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광한루원 미술산책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한루원 경내 가을 낙엽 산책로와 월매집 2곳에 남원지역 작가를 포함한 50인의 회화·조각 등 50여점의 예술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작품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큐레이터가 상주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1등 정원을 지향하는 광한루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바라보면서 예술의 감수성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주변 가족들과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